1일차 동화사 입재 ▶ **5일차** 신라불교초전지 132km ▶ **6일차** 낙단보 마애불 163km ▶ **9일차** 문경 대중공사 I 212km ▶ **11일차** 문경새재 268km


동화사 자비순례 입재식


순례단 새벽 순례


신라불교초전지 아도화상 헌향재


낙단보 마애불 법회

국난극복 불교중흥의 염원

만행결사 자비순례 21일의 대장정

노덕현 기자 noduc@hyunbul.com

"부처님께서 인류의 정신 새벽을 여시었듯이, 오늘 우리는 국난극복의 새로운 새벽을 열어, 국민이 기쁘고 행복한 보살행원의 길을 가겠나이다. 우리가 내딛는 걸음걸음은 고난과 고행이 아니라, 부처님께서 걸으시며 행하셨던 진리와 자비의 행을 이어받아, 이 땅에 불국정토를 장엄하는 길임을 믿겠나이다. 지극한 마음으로 자비순례의 길을 나서옵니다. 동참 대중 모두가 불교중흥과 국난극복을 발원하오니 섭수하시어 환하게 밝혀주시 옵소서."

여명이 움트기 전인 새벽이면 만행결사 자비순례 순례단의 하루는 시작됐다. 부처님께 올리는 발원문을 함께 낭독하고 순례단은 길을 나선다.

상월선원 만행결사는 10월 7일 대구 동화사 통일약사대불보전 광장에서 입재를 갖고 21일간의 대장정을 시작했다.

이날 입재식에는 종정 예하 진제 법원 대종사가 직접 증명법사로 참여해 법어를 내리고 순례단을 독려했다.

진제 법원 대종사는 법어를 통해 "2600년 전 새벽별을 보고 깨달은 부처님의 길을 따라 사부대중이 만행결사 자비순례 정진에 나섰다. 화두가 있는 이는 각자 화두를 챙기되 화두가 없는 이는 부모가 나를 낳기 전 나는 무엇이었는가는 화두를 안고 정진해달라"며 "신심을 갖고 용맹정진하는 이만이 화두를 타파할 수 있다. 자비순례에 동참하는 모든 대중이 일거수 일투족에 화두가 가득하길 바란다. 깨달음으로 한걸음 더 나아가라"고 당부했다.

순례의 목적은 개인의 수행 차원을 넘어서는 것이었다. 코로나19로 시름하는 국민들에게 희망을 안기고, 새로운 불교의 모습을 보여 불교 중흥을 이끄는 대서원의 발로였다.

순례단은 대구 동화사 입재식 후 총 132km를 걸어 10월 11일 구미 신라불교초전지에서 아도화상 전에 헌향하고 고구려에서 신라로 불교를 전래한 아도화상과 같이 불교중흥을 위한 걸음을 계속 할 것임을 다짐했다.

헌향재를 위해 결사대중은 10일 숙영지에서 새벽 4시에 출발했다. 대구에서부터 4일간 100여 km를 걷고 다시 5일차 28km의 구간. 자원봉사자들과 의료팀들의 도움이 있었지만 수일간의 순례로 피로가 누적된 상황이었다. 10일까지 관절염증과 근육통, 물집 등으로 치료를 받은 이들만 43명에 달했다. 하지만 신라불교초전지에 도착한 결사대중의 발걸음은 가벼웠다.

10월 7일, 동화사서 대장정입재
10월 11일, 신라불교초전지 헌향
10월 12일, 낙단보 마애불 법회
10월 15일, 문경서 첫 대중공사

헌향 후 격려사에서 종회의장 범해 스님은 "지난 겨울 동안거 상월선원 천막결사는 수행역사상 전무후무한 대중무문관 수행으로 참선수행이 한국불교 수행의 중심이라는 사실을 주지시켰고, 사부대중에게 새로운 감동을 선사했다"며 "부처님이 걸어서 전법을 하셨듯, 올해는 만행의 형태로 결사를 추진함으로써 수행의 새로운 모습을 보이고 있다. 국난극복과 불교중흥을 위한 걷는 수행으로 불교의 새로운 바람이 불길 기원한다"고 말했다.

순례단은 10월 12일 총 163km를 걸어 불교 성보지킴과 환경운동의 상징이 된 의성 낙단보 마애불에서 법회를 갖기도 했다.

낙단보 마애불로 알려진 의성 생송리 마애보살좌상은 2010년 10월 6일 낙단보 구간 발파 작업 중에 발견됐다. 성보를 잃어버릴 위기에서 조계종은 10월 20일 성명을 내고 26일 제33대 조계종 총무원장이었던 봉은사 회주 자승 스님이 현장을 방문하게 된다. 이 당시 조계종은 정부당국에는 소중한 성보유산을 보존해줄 것을, 불자들에게는 성보의 존재와 보존의 필요성을 알렸다. 이에 불자들의 원력이 모여 12월부터 구미 대둔사 주지 진오 스님이 매일 예불을 올리기 시작했고, 2011년 2월 1000여 사부대중이 생명살림 1080배 정진을 올리며 결국 마애불을 지켜냈다. 공사과정에서 훼손될 뻔한 마애불을 지켜내고 마애사 불사까지 일군 원력이 10년이 지난 2020년 10월 12일 만행결사 자비순례라는 이름의 새로운 원력과 맞닿은 자리였다.

순례단은 이후 매일 수십km를 걷느라 힘든 와중에도 한국불교 미래를 모색하는 자리도 가졌다. 9일차인 10월 15일에는 문경 STX리조트에서 '상월결사의 시대적 의미와 과제'를 주제로 교계 안팎의 학자들이 동참한 가운데 대중공사를 진행했다. 이날 세미나에는 불교계를 대표하는 출·재가 불교학자들이 상월선원 천막결사와 만행결사의 전반을 분석하는 소논문을 발표했으며, 회주 자승 스님을 비롯해 순례단은 이를 경청했다.

11일차인 10월 17일에는 문경새재를 넘어 반살림을 고했다. 문경새재는 입재식 후 총 368km를 걸은 구간으로 순례의 반환점이자 가장 고된 길이기도 했다. 이화령이 보이는 진안리부터 문경새재 관문이 있는 이화령까지는 8km. 예로부터 구법승들이 넘었던 새재길에서 순례단의 발걸음은 더욱 빨라졌다. 해발 548m의 고갯길을 넘으며 순례단은 하나가 됐고, 이런 순례단의 길에 수많

종정예하 진제 법원 대종사 증명 법어

걸음 걸음마다 화두 참구를…



當機一句千古輝(당기일구천고휘)
臨危不變是丈夫(임위불변시장부)

기틀에 다다른 일구는 천고에 빛남이요,
위태로움에 당하여 변치 아니함은 이것을 방부라 칭(稱)함이라.

기틀에 합당한 일구(一句)는 종사가(宗師家)의 안목(眼目)을 갖춘 이라야, 석화전광(石火電光)과 같이 염출한다.

종사가들이 상봉(相逢)하여 진리의 세계를 거량할 때, 그 한마디 한마디와 일거일동은 돌불보다도 빠르고 번갯불보다도 빠르다. 이렇게 빠르고 밝은 눈을 갖추신 분이야말로 천고(千古)에 선지식이 됨이로다.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길에서 탄신(誕辰)하시고 길에서 대오견성 하시고 길에서 설법(說法)하시다가 길에서 열반(涅槃)에 드셨습니다.

2600년 전 새벽 별을 보고 깨달으신 그 부처님의 길을 따라 사부대중(四部大衆)이 만행결사 자비순례 정진에 나서니, 부처님의 진리가 시대와 공간을 초월하여 현전(現前)함이라.

이에 사부대중은 부처님의 은혜를 갚고 생사를 요달(了達)할 수 있도록 가일층 정진하기 바라노라.

화두가 있는 이는 각자의 화두를 챙기되,
화두가 없는 이는, '부모에게 나기 전에 어떤 것이 참나인가?' 하고 이 화두를 가나오나, 앉으나 서나, 간절한 마음으로 챙기고 의심하기를 하루에도 천 번 만 번해야 할 것이라.

그렇게 걸음걸음마다 호흡 호흡마다 혼신(渾身)을 다해 노력하다 보면, 문득 참의심이 발동하게 됨이라.

이때는 사물을 보아도 본 줄을 모르고, 소리를 들어도 들은 줄을 모르는 상태로 일주일이고, 한 달이고, 일 년 이고, 시간이 흐르고 흐르다가 홀연히 사물을 보는 찰나에, 소리를 듣는 찰나에 화두가 박살이 나고 자기의 참모습이 환히 드러나게 되는 것이다.

그러면 한 걸음도 옮기지 않고 부처님의 땅에 이르게 되고, 천 칠백 공안이 한 꼬챙이에 다 꿰어버리게 되어, 누가 어떤 법문을 물어와도 척척 바른 답을 내놓게 되는 법이로다.

이것이 호왈(號曰) 대오(大悟)견성(見性)이고, 확철대오(廓撤大悟)이니, 반드시 눈 밝은 선지식을 친견하여 바르게 점검받고 인가를 받아야 함이라.

〈중략〉

금일 3 · 7일 노상에서 씨름하는 모든 대중은 알겠는가?
보고 또 보라!

환희의 미소 순례단의 얼굴에 꽃피다

국민희망 된 순례, 응원 감사

순례단 1조 조장 우봉 스님



우봉 스님은 선두조인 1조 조장으로서 이번 순례를 진행했다. 우봉 스님은 "코로나19 시기에 정부 당국이 방역을 나서는 상황에서 스님들과 불자들이 순례를 통해 코로나19 극복의 의지를 알린 뜻깊은 순례였다"며 "의사들이 물리적으로, 행정적으로 코로나 방역을 했다면 순례에서 정진하고 있는 이들은 신심으로 방역을 했다"고 말했다.

정주 형태로 같은 일정을 소화하는 태화산 예비순례와 달리 이번 국난극복 자비순례는 많은 부분에서 신경을 써야만 했다. 조별 발열점검부터 건강점검, 상황전달 등 매순간 긴장을 놓칠 수 없는 일들이 이어졌다.

스님은 "이번 순례가 개인의 행선을 넘어 하나의 대중 수행이라는 점에서 새로운 의미를 찾는다"고 말했다.

끝으로 스님은 "모두가 마음을 내 한걸음 한걸음마다 국민들의 행복을 기원하고 걷는 것이 부처님의 가피로 회향돼 국민들 행복이 증진되리라 본다"며 "순례단도 힘들고 지칠때마다 응원하고 한걸음 한걸음에 희망을 거는 국민들을 보며 힘을 냈다"고 말했다.

감동불교 되도록 노력할 것

주윤식 조계종 중앙신도회장



주윤식 조계종 중앙신도회장은 10월 6일 취임했다. 이번 자비순례가 입재한 날은 10월 7일. 취임 후 첫 행보가 바로 순례였다.

"자비순례가 진행된다는 말에 바로 동참을 결정했습니다. 순례과정에서 앞으로 중앙신도회가 어떤 방향으로 가고 어떻게 해야 할지를 화두로 정진했습니다."

주 신도회장에게 이번 순례 동참은 쉬운 결정이 아니었다. 취임 직후 3주간 자리를 비우기도 하는 것이려니와 개인적으로 매일 2~30여 km를 걷는 것이 쉽지만은 않았다.

발에 물집이 잡혔지만 주 회장은 끝까지 순례에 함께 했다. 주 회장은 "사부대중이 함께 각자의 위치에서 최선을 다해 정진하고 부처님 가르침대로 실천한다면 자연스럽게 국민들에게 존경받는 불교가 될 것"이라며 "이러한 생각을 다시 느끼게 한 기회에 감사하다"고 말했다.

주 회장은 "이번 순례는 불교 중흥이라는 목적 말고도 코로나19 피해를 극복하기 위한 큰 명제가 있는 만큼 순례에 임하는 각오를 새롭게 하고 순례 이후에도 불자로서 우리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이 있을지 고민겠다"고 다짐했다.

한반도 평화의 새 순례 기대

김용현 동국대 교수



"이번 만행결사는 한국불교에 대한 새로운 열망을 담는 자리였습니다."

김용현 동국대 교수는 그 누구보다 이번 순례의 가치에 대해 높게 평가하는 이다. 그는 이번 순례를 통해 한국불교가 한차원 높은 곳으로 도달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김 교수는 "추위를 녹일 수 있는 불자들의 마음이 함께 느껴져 더 없이 따뜻한 순례였다"며 "21일간 큰 결심으로 서로 격려하며 만행에서 참 번뇌를 끊어버리고 새롭게 삶을 축적해나가는 에너지를 만드는 계기가 됐다"고 평가했다.

많은 고난이 있었지만 개인적으로 즐거운 시간이었다는 김 교수는 학교에 봉직하는 물리적인 어려움에도 순례단과 학교를 오가며 대부분의 순례에 참여했다.

북한학을 전공한 김 교수의 행선 화두는 자연스럽게 '한반도 평화'였다. 김 교수는 이런 화두를 계속 참구했고, 대중공사에서 차기 순례로 평화순례를 제안하기도 했다. 김 교수는 "이번 자비순례가 새로운 방식으로 회향됐으면 한다. 한반도 평화를 기원하는 큰 명제 속에서 새로운 순례의 장이 열렸으면 한다"고 말했다.

평발 아픔, 책임감으로 극복

김정도 동국대 대학원 총학생회장



이번 만행결사 자비순례에 참여한 결사 대중 중에는 몸이 불편한 가운데서도 결연한 의지로 이를 이겨내는 이들이 있어 잔잔한 감동을 선사한다. 동국대 대학원 총학생회장인 김정도(28)씨는 그 중 한 명이다.

그는 대학 학부 총학생회장인 이제준 씨와 함께 이번 순례 21일 일정에 동참하고 있다. 김 씨는 "불교종립대학인 동국대 일원으로서 이번 순례에 꼭 참여해야겠다고 생각했다"며 이번 순례 참석 계기를 밝혔다.

동국대 학생대표로서 어깨가 무겁다는 그에게는 작은 고민이 있다. 바로 평발인 것이다. 첫날부터 물집이 많이 잡혔지만 끝까지 순례단과 함께했다.

김 씨는 "처음에는 많이 아팠지만, 아파도 계속 걷다보니 그대로 통증이 사라졌다"고 말했다. 김 씨는 "그동안 살면서 큰 어려움은 없었지만 이번 순례를 통해 어려움이 닥쳤을 때 마음이 어떤 힘을 주는지 느끼게 됐다. 순례 이후에도 많은 분들이 함께 마음을 모아 국가의 어려움 뿐만 아니라 우리 삶 곳곳에서 사람들의 어려움을 어루만지는 데 함께 나섰으면 좋겠다"고 했다.

원력 세우며 도전정신 다져

윤정은 한국대학생불교연합회 회장



윤정은 한국대학생불교연합회 회장은 자비순례를 통해 새로운 인생철학을 만들고 있다고 했다. 윤 회장은 이번 자비순례에 앞서 봉은사서 매주 목요일 진행된 새벽정진부터 순례에 동참했다. 수없이 걷기를 연습했지만 가냘픈 몸으로 21일의 511km 여정을 소화하는 것은 다소 무리였다. 순례의 절반이 채 되지 않아 발에 누적된 피로로 도저히 걸을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 하지만 윤 회장은 앰뷸런스를 타고 순례를 끝까지 이어갔다.

윤 회장은 발이 나아 순례에 동참했다. 신체의 아픔도 정신력으로 극복할 수 있음을 직접 보였다. 윤 회장은 "이번 순례에는 함께 수행하는 이들이 같이 걷기 때문에 더욱 힘이 난다"고 말했다.

순례가 끝나면 학업 때문에 참여하지 못한 다른 학우들을 위해 온라인 프로그램 등을 통해 순례 일과를 공유하고 있는 윤 회장. 윤 회장은 순례 이후에도 청년불자들의 도전 정신을 높이는 데 앞장설 계획이다.

"불교를 중심으로 함께 모인 이 길이 너무 행복합니다. 청년불자들의 원력을 모으는 데 밑거름이 되도록 마음을 새롭게 하겠습니다."